

## 가축위생방역사업과 축산산업발전에 훈신의 노력 다할 터...

지난 5월 6일 신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에 배상호 전 농림부 가축위생과장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따라서 본고는 새로 부임한 배상호 본부장을 만나 가축위생방역 활동의 중요성과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향후 운영방안을 들어보았다.

### 가축방역·위생분야의 전문가

배상호 본부장은 서울대학교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1987년에는 영국 래딩대학에서 수의역학 및 경제학을 전공한 바 있다. 1994년에는 농림부(현 농림수산물부) 가축위생방역과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연구부장을 거쳐 대한수의사회 사무처장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발족된 이후 2001년부터는 전무를 맡아 질병방역의 실무를 담당한 바 있다.

특히, 농림부에 근무할 당시 축산물가공처리법 전면개정('97. 12) 및 축산물위생관리체제 일원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농림부에서 가축사육·도축(집유)·가공·보관·운송·판매 업무일원화하면서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의 법적근거 및 기반을



#### ▲ 배상호 본부장

- 1964 서울대수학과 수의학 전공
- 1987 영국 래딩대학 수의역학 및 경제학 전공
- 1994~1998 농림부 가축위생과장(방역·위생 담당)
- 1994~1998 국제수역사무국(OIE) 상임대표
- 1998~1999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연구부장(질병방역 담당)
- 1999~2001 대한수의사회 사무처장(수의업무 담당)
- 2001~200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무(질병방역 담당)

확립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배상호 본부장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5년간 근무한 경험으로 실무능력도 인정받아 왔다.

## 가축방역의 중심체로 거듭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지난 1999년 4월 설립되어 10여년이 흐르는 동안 정부의 방역·위생 그리고 검역업무를 직접 보조하는 한편, 축산농가에게 신속·정확한 질병정보제공과 검진사업 등으로 질병근절에 앞장서는데 큰 기여를 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가축위생 및 방역지원을 위한 조직과 업무영역 확대 등을 통해 괄목한 성장을 하여 왔으며 특히, 중앙본부를 비롯하여 8개 도본부, 41개 출장소, 3개 검역사무소에서 466명의 전 임·직원이 정부의 가축위생방역업무와 도축검사업무 그리고 금년 3월부터는 검역업무까지 직접 지원하는 중앙 집권적인 정부산하 특수법인으로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다.

또한 2007년에는 “공공기관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획예산처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소브루셀라병 검진사업시행으로 매년 양성율이 떨어져 2006년 2.2%에서 2009년 현재 0.2%로 근절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돼지오제스키병도 2006년 7건에서 2008년에는 한건도 발생되지 않아 청정화 선언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배상호 본부장은 이 모든 것이 방역지원본부 임·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땀의 결실이며, 혈청검사 등 현장 방역업무에 적극 협조해 준 농가들의 공으로 돌렸다.



▲배상호 본부장이 지난 5월 6일 취임식을 통해 향후 포부를 밝히고 있다.

## 적극적인 방역활동 기대

배상호 본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방역본부에 몸담다가 떠난 지 3년만에 본부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감개무량하며, 명예스럽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큰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공직생활 중 경험했던 전문지식을 충동원하여 가축위생방역사업과 축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배상호 본부장은 WTO, FTA협정체결 등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축산산업이 살아남을 길은 안전한 축산식품 생산공급으로 소비자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 길임을 강조하고 조류인플루엔자(HPAI), 구제역(FMD), 소해면상뇌증(BSE)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역지원 활동을 펼쳐갈 것임을 다짐했다.

배상호 본부장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경제성 질병의 근절과 안전축산 먹거리 제공 등 봉사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더욱 충실한 방역본부로 거듭날 것이며,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수의과학검역원의 현장업무를 점진적으로 확대 위임받아 정부의 가축위생 및 방역업무를 적극 지원할 뜻을 거듭 강조했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kim300@hanmail.net)